

설교 / 복의 근원 (창 12:1~3)

아무리 목적과 계획이 좋아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후회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됩니다. 괴로워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험난해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나선 길이라면 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1.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의 외모와 배경으로 인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도 조건과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 의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말씀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에 주도면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상식 밖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를 좋은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길이 비록 고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이나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분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상속자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펴는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때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2019 추석 가정예배



예수교 창신교회
대한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종복

2019 추석 가정예배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사 인도자

“모두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추석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시 121:5-8 인도자

- 5)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찬송 589장 (통 308) 다 같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 가족 중에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들에 익은 곡식들처럼 풍성하고 넓은 가을 하늘 만큼 한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한가위에 가정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곤경에 처하며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며, 불안한 가운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더 많았고 서로 남 탓만 하며 답답한 현실에 갇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가정마다 더 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감사의 찬양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창 12:1~3 (구 p.13) 말은이
 (성경봉독은 다른 분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찬송 570장 (통 453) 다 같이
 (가족 중에서 특별찬송으로 해도 좋습니다.)

말씀 복의 근원 인도자
 (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 560장 (통 없음) 다 같이

1.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2.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3.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 [후렴]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축복기도 다 같이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품에 안거나 손을 잡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한 후에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 다 같이

※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낀 점을 가족끼리 함께 대화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1) 우리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2) 앞으로도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